

김광혁 전주대 교수, 복지부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김광혁(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드림스타트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육육 파악, 지역자원 연계,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장관상을 받은 김광혁 교수는 드림스타트 평가 체계 개발 연구와 영유아·저소득층 아동 발달 연구 등 드림스타트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또 드림스타트 평가위원 및 중앙평가위원장 수퍼비저 양성 과정 평가위원, 사례관리사 전문 교육 등을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했다.

특히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과 이론을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지역 내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광혁 교수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과 사례 관리체계의 전문화·사례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강아지에 발생 난치성 폐고혈압 치료 사례 발표

전북대 김정현 수의사, 한국임상수의학회 우수발표상

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김정현 수의사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수희는 '난치성 폐고혈압에서 Imatinib의 임상효과'라는 증례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이 연구는 강아지에서 발생하는 난치성 폐고혈압 치료를 위한 항암제인 'Imatinib'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고혈압은 개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약 이외에 항암제인 'Imatinib'이 치료의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임상을 통해

밝힌 것으로 의미가 크다. 김수희는 "지도 교수님과 연구실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지식을 넓혀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총장배 테니스 대회... 300여팀 참여 열전

전북대학교 총장배 테니스대회가 2~3일 이틀간 펼쳐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전북대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과 이철희 전라북도 테니스협회 부회장이 이영섭 전주테니스협회장을 비롯한 도내 동호인 및 일반인 300여 팀이 참여한 가운데 남·녀 복식으로 경기가 펼쳐졌다.

특히 전북대와 전라북도테니스협회, 전주시테니스협회, 그리고 지역 내 테니스 관련 업체인 쟁테니스아카데미와 라온실내테니스장에서 후원한 경품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전달됐다.

안국찬 부총장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더 큰 걸음을 걸고 있는 전북대가 지역민들과 보다 밀착형 소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 백산면, 저소득 독거남성 가구 과일청 전달

김제시 백산면(면장 최미화) 기초생활지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4일 저소득 독거남성 47가구에 직접 방문 과일청 꾸러미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추진위원들과 동아리 활동가들이 직접 준비한 과일청·찰골빵 꾸러미를 저소득층 독거남성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미화 면장은 "저소득 독거남성들과 이웃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추운 날씨에 이웃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재형 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과일청을 준비했는데, 대상자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미화 백산면장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백산면 기초생활지원사업 추진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진협 전북도회, 무주군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 기탁

무주군은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으로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을 직접 방문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지역의 성장동력은 바로 지역의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과 환경을 만들고 또 대학에 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차원에서 무주군 인재 육성

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까지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여러분의 마음이 학생들 꿈과 열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쓰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지역 업체 하도급 제도 건의 등 도내 전문건설업의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회원사가 뜻을 모아 해마다 이웃돕기와 장학금 지원 등에 앞장서며 더불어 같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외국인 유학생 시 낭송대회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일 II 리사이틀홀에서 (사)한국감성리더스낭송협회와 공동으로 2023 외국인 유학생 시 낭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시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서를 알리고자 시낭송협회 회원과 외국인 유학생이 1:1 멘토-멘티 결연으로 팀을 이뤄 진행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중국 출신 단이란 학생과 멘토 김선욱 회원은 허만하 시인의 '길'을 낭송했다.

또 금상을 수상한 베트남 출신 레티투이짱 학생과 멘토 박명용 회원은 '천 개의 바람이 되어 가는 시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애절하게 표현했다'.

전주대 흥성덕 대외부총장은 "시 낭송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정서를 알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성리더스낭송협회 이화경 이사장은 심사평을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시에 담긴 정서와 문화를 유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유학생들과 우리 회원의 하나 된 목소리가 결국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어우러짐이 있는 것을 느낀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회 수상자(유학생 지도멘토)로는 △대상 란이랑 김선욱 씨 △금상 레티투이짱, 박명용 씨 △은상 임금 유동근 씨 △동상 권태환, 천태식 씨 △장려상 황지나 정행진 씨 △특별상 생만, 박태성 씨가 받았다.

/정은성 기자



'나누면 행복은 두 배'... 무주 곳곳 이웃돕기

골프존카운티무주(임직원 및 캐디)가 4일 무주군청에 이웃돕기 성금 1천 1백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성금은 안성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서상현 대표는 "날이 추워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느끼고 겪는 고통은 더 클 것"이라며 "걱정되는 마음을 모아 전달을 하는 것인 만큼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내는 데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전했다.

골프존카운티무주는 무주군 안성면에 소재한 골프장으로 2020년부터 4년간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같은 날 제성푸드의 김민용 대표도 김치 5kg 1백 박스(2백만 원 상당)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이날 배우자와 자녀 등 온 가족이 함께 무주군을 찾은 김대표는 "김장이 한창인데 형편이 어려워 업무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며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무주군 지역의 이웃들이 든든하게 겨울을 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은행, 진안군에 '방한꾸러미' 전달

진안군은 4일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영민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은행 방한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군수실에서 가졌다.

'방한꾸러미 나눔' 사업은 전북은행의 겨울철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날은 담요, 수면마시 등 겨울나기 생필품으로 구성된 400만 상당의 방한꾸러미 55상자를 진안군에 전달했다.

김영민 부행장은 "직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겨울나기 방한꾸러미가 추위에 지친 취약계층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추위를 이기는



전달 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광활면 지사협, 수제유자청 100세대에 전달

김제시 광활면(면장 정수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은미)는 4일 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제 유자청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유자를 손질하고 청으로 만들어 관내 독거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100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 수제 유자청을 전달하며 겨울철 건강과 인부를 살렸다.

수제 유자청을 받은 북거 어르신은 "정성 가득한 유자청을 받으니 올 겨울 감기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은미 민간위원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취약계층의 건강을 겨울나기를 위해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4일 장날을 맞아 진안고원시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불법주·정차 금지, 운전 중 스마트폰 하지 않기 등을 홍보했고, 겨울철 도로 살얼음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며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전달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갖기를 당부했다.

일명 '블랙아이스'라 불리는 도로 살얼음이란,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겉으로 눈은 도로처럼 보이거나 도로색으로 보여 식별이 곤란하고 갑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져 차량 제동이 곤란하거나 제동거리 증가로 연쇄 추돌 등 겨울철 도로 위의 암살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황산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극세사 이불 전달

김제시 황산면(면장 김효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준식)는 4일 관내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 20세대에 극세사 겨울 이불 세트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겨울 이불 지원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고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연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QMS,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민간들이 직접 모은 기부금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에는 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인부를 묻고 이불 세트를 전달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이준식 민간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 겨울에도 치솟는 난방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극세사 이불세트를 전달하여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연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숙 황산면장은 "더 세심하게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한해 새학기 새학년 선물지원사업과 우리집 안전자킴이 규약양자 지원, 말벗이 보양탕 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농기센터,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일까지 남원시 외식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원푸드 활용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디지털(빵·과자·음료 등)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및 해당 분야의 창업 3년 미만 기업 창업자 10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은 브랜딩 메뉴 관리, 위생 및 MOT, 슌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 현장실습까지 창업 실무에 필요한 분야를 내년 2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제공한다.

신청은 남원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현수막에 기재된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받고 있으며 수료 시 아카데미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